

강성열 교수의 성경을 여는 열쇠, 창세기

1장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

1. 오경과 창세기

창세기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창세기가 구약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느냐를 알 필요가 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성경의 첫 책이면서 동시에 오경(五經; Pentateuch)의 첫 책이기도 하다. 그리고 창세기가 속해 있는 오경은 창세기에 서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구약의 첫 다섯 권을 일컫는다.

오경이라는 표현은 본래 오리겐(Origen)이라는 초기 교회 교부가 처음으로 사용한 헬라어 ‘펜타튜코스’(Pentateuchos)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단어는 “다섯”을 뜻하는 ‘펜타’(Penta)와 “두루마리 보관 상자”를 뜻하는 ‘튜코스’(Teuchos)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합성어인데, 나중에는 이 말이 다섯 개의 두루마리 자체(scroll)를 뜻하는 표현으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풀이에 의한다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다섯 권은 맨 처음에 다섯 묶음의 두루마리로 나누어 보관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다섯 권의 오경은 맨 처음에 히브리 성서에서 ‘토라’(Torah)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토라’는 ‘야라’(yarah)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로서 “가르침, 교훈, 지시, 방향 제시”(instruction, direction, guidance) 등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토라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가르침 내지는 그들의 나아갈 길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 제시를 포함하는 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주전 3세기경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구약성경(LXX)이 ‘토라’를 ‘노모스’(Nomos; “법” 또는 “율법”이라는 뜻)라는 헬라어로 옮기면서 토라는 서서히 율법 또는 율법서로 불리기 시작했다. 70인역의 이러한 번역은 아마도 오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률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아니면 오경의 중심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각종 언약법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오경에서 창세기를 제외한 나머지 네 권의 책들은 거의 다 시내 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법과 관련되어 있는 까닭에 (율)법이 오경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율법조차도 여러 군데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경을 “율법(서)”이라고 부르는 것은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특히 창세기의 경우에 그러하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사실 율법(서)이라는 개념과 거의 무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2. 명칭에 대한 해설

히브리 성서는 각 책을 흔히 그 책의 가장 첫 단어를 따서 부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특히 오경에서 그러함) 창세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오경의 첫 번째 책을 이 책 1장 1절에 있는 첫 단어를 취하여 ‘브레쉬트’라고 불렀다. 이 명칭은 “태초에”(in the

beginning)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70인역은 이 책을 번역하면서 그 명칭을 ‘게네시스’(Genesis)로 바꾸었다.

70인역이 이처럼 명칭을 바꾼 것은 이 책의 기본 구조가 2장 4절과 5장 1절, 6장 9절, 10장 1절, 11장 10절, 11장 27절, 25장 12절, 25장 19절, 36장 1절, 36장 9절, 37장 2절 등에 있는 히브리어 ‘톨레도트’(“족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70인역은 이 단어를 ‘게네세오스’(Geneseos)로 옮기고서, 이 책의 명칭을 ‘게네시스’로 정한 것이다. 사실 ‘게네세오스’나 ‘게네시스’는 발생, 기원, 근원, 원천, 출생, 혈통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70인역이 이 책을 어떠한 책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70인역이 정한 이 명칭은 나중에 라틴어 성경과 영어권을 비롯한 각종 현대어 번역 성경에 그대로 이어졌다. 우리말 성경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한글판 개역 성경은 처음에 번역되어 나올 때부터 이 책의 이름을 “창세기”(創世記)라고 부른 것이다. 이 명칭은 오경의 첫 번째 책이 문자 그대로 세상의 창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명칭은 70인역의 명칭보다는 더 범위가 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70인역은 이 책이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을 굳이 세상, 곧 우주 만물에 국한시키지 않고 있지만 한글판 개역 성경은 이 책이 세상의 창조에 관한 책이라는 관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창세기”라는 명칭이 다소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 성경 이외의 다른 모든 한글판 번역 성경들-이를테면 공동번역,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표준 새번역 성경 등-은 한결같이 오경의 첫 번째 책을 창세기라고 부르고 있다. 아마도 그 이상의 좋은 표현이 아직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3. 창세기의 구조

창세기는 구조상의 특징으로 보아 족보 또는 계보를 뜻하는 ‘톨레도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어는 모두 11군데에 나타나는데, 그중에 2장 4절과 6장 9절, 25장 19절, 37장 2절 등의 네 군데는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5장 1절, 10장 1절, 11장 10절, 11장 27절, 25장 12절, 36장 1절, 36장 9절 등의 일곱 군데는 족보를 소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괄호는 개역에 번역된 낱말임).

〈개역 개정판: 이야기 소개의 경우〉

- | | |
|-------|------------------------------|
| 2:4 | 창조 이야기의 결론(천지의 창조된 “내력”; 來歷) |
| 6:9 | 노아 홍수 이야기(노아의 “족보”; 族譜) |
| 11:27 | 데라 가족의 이야기(데라의 “족보”; 族譜) |
| 25:19 | 야곱 이야기의 시작(이삭의 “족보”; 族譜) |
| 37:2 | 요셉 이야기의 시작(야곱의 “족보”; 族譜) |

<개역 개정판: 족보 소개의 경우>

5:1	아담의 자손들(아담 자손의 “계보”; 系譜)
10:1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셈과 함, 야벳의 “족보”)
11:10	셈의 자손들(셈의 “족보”)
25:12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스마엘의 “족보”)
36:1	에돔의 자손들(에돔의 “족보”)
36:9	에서의 자손들(에서의 “족보”)

4. 창세기의 주요 내용과 신학

창세기는 내용상으로 보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1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는 원역사(原歷史; Primeval History)이고 다른 하나는 12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는 족장사(族長史; Patriarchal History)이다. 여기서는 원역사와 족장사의 주요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원역사 (1-11장)

원역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창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들의 범죄, 에덴에서의 추방,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최초의 살인, 노아 홍수에 얽힌 이야기, 민족의 번성과 분열, 바벨탑 사건 이야기 등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시대를 일컫는다.

원역사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에서 3장은 우주 만물과 인간이 맨 처음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서술함과 아울러, 인간의 제반 실존 양상, 곧 삶과 죽음, 노동, 출산의 고통 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비롯된 인간의 죄악성이 가인과 아벨을 거쳐 홍수 심판 및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다.

또한 원역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각종 범죄 행위를 어떻게 처벌(심판)하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심판이 끝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 은총을 주시는가를 네 개의 연결된 이야기 구조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범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심판 후에 주어지는 새로운 구원 은총 등을 차례대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역사가 이처럼 인간의 범죄 역사를 상세하게 추적해 가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어떤 길을 걷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밝혀내고자 함에 있다. 위에서 말한 네 가지의 주요 사건들은 한결같이 인간이 피조물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무절제한 욕망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고 마침내는 인류를 파멸에 빠뜨리게 한다. 홍수 심판과 언어 혼잡(바벨탑 사건)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결국 인간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원역사는 이처럼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밝힘으로써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인간은 누구나 그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버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12장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파멸에 빠진 세상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또는 구원)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이스라엘 역시 이와 동일한 부름을 받아 생겨난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원역사를 일컬어 족장사의 배경 내지는 전주곡이라 부르는 것이며, 아울러 족장사를 일컬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Salvation History; 또는 구속사, Redemption History)의 시작 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2) 족장사 (12-50장)

원역사와는 달리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족장사는 본래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어 이삭과 야곱 및 요셉의 이야기들로 연결된다. 따라서 족장사는 문자 그대로 족장(族長; patriarch)들의 역사인 것이다.

족장사의 내용을 인물 중심으로 압축시킨다면 12장에서 25장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삭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21장, 24장)와 야곱 이야기(26장)에 흡수되어 있다. 그리고 25장 19절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는 다시금 예서와의 관계,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그의 아들들과의 관계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누인다. 마지막으로 37장에서 50장은 요셉의 이야기를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족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의 약속을 기본 줄기로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그로부터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약속은 나중에 가나안 정착과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적어도 족장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좀처럼 성취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도 정착할 땅을 쉽게 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나 족장들의 아내가 한결같이 약속의 자손을 쉽게 얻지 못하고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그렇다면 족장들이 직면한 이러한 현실, 곧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만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비해 너무도 초라한 그들의 현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 약속이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님을 강조한다. 아울러 그것은 족장들로 하여금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시간을 잠잠히 바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약속의 성취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 주기도 한다. 사람의 힘으로는 약속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사람의 자신의 노력

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야 말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속 성취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상의 신앙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나침반 바이블
BIBLE